

중세 스페인 톨레도의 번역과 후원*

박 소 영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소영(2015), 중세 스페인 톨레도의 번역과 후원. 이베로아메리카연구.

초 록 그리스 문화는 9세기부터 바그다드에서 아랍어로 번역되어 이슬람 문명을 발전시켰고, 그리스 문화를 수용·발전시킨 이슬람 문화는 11세기부터 이베리아 반도 내 코르도바와 톨레도 등지에서 라틴어와 로망스어로 번역되어 유럽 전역의 문명개화를 이끌었다. 쓰지 유미(辻 由美, 2008: 50)는 “그리스 문화를 보전한 이슬람교도들의 번역 활동과 중세 유럽에서 아랍 문화 도입의 중심지였던 스페인 톨레도의 번역 활동을 빼놓고는 유럽이 번역사(翻譯史)를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톨레도가 중세 유럽의 번역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수한 인재뿐만 아니라 교회와 왕실의 후원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톨레도의 번역 활동과 관련해서 그간 학계의 관심이 주로 번역자와 번역서, 그리고 톨레도 번역자 학교(La Escuela de Traductores)의 진위 여부에 치중된 것으로 판단하는 바, 본 연구는 번역학자 르페브르(Lefevre, 1992: 15)의 후원(patronage)의 개념에 기대어, 레이몽 톨레도 대주교(Francis Raymond de Sauvetat, the Archbishop of Toledo, 1125–1152)의 교회의 후원과 현왕 알폰소 10세(Alfonso X, the Learned, 1222–1284)의 왕실의 후원으로 나누어 번역 후원 양상을 고찰하고 그 함의를 모색하도록 한다.

핵심어 중세 스페인, 톨레도, 번역, 후원, 레이몽 대주교, 현왕 알폰소 10세

* 이 연구는 201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들어가며

아프리카와 유럽, 신대륙과 유럽을 매개하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스페인은 전 세계 어느 지역 어느 국가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언어를 번역해낸 ‘번역국’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페인 역사학의 관점에서나 통번역학의 관점에서 스페인의 번역사(翻譯史)¹⁾에 대한 선행 연구는 많지 않다. 스페인 번역사를 고찰한 연구로는 조민현(2012)이 유일하다. 톨레도의 번역 활동의 의미를 역사, 철학, 문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조민현(2012, 302)은 중세 톨레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번역 활동을 “다문화적 사회가 낳은 대표적인 문화 운동”으로 정의하며, 톨레도가 “중세 번역 문화 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새롭게 탄생하던 유럽의 대학에 지적인 자양분을 제공하고 르네상스 학문의 한 발판을 형성하며 근대 유럽 탄생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상익(2011: 3)은 이슬람 세력과의 접촉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 앞에 “서유럽인들이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수행한 과제는 번역”이었다고 설명한다. 한편 문학 수용의 관점에서 번역 활동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연구로는 백승옥(2009; 2011)이 있다. 백승옥은 인도의 고전 설화집 『판차탄트라 Panchatantra』가 아랍어 버전인 『칼릴라와 딘나 Kalila wa Dimnah』로 번안되고, 다시 중세시대를 지나며 스페인어 버전 『센데바르 Sendebarr』를 번역되는 과정을 비롯하여 중세 설화집에 영향을 준 다양한 판본들에 대한 계보학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연구의 공통적인 주장은 중세시대 번역이 문화 전파와 새로운 문화로의 이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역사 연구가 과거의 기록이라는 의미에서 나아가 미래지향성을 갖기 위해서는 번역 현상 자체보다는 번역을 추동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다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번역 운동을 추진한 동인을 ‘후원’의 개념에 기대어 번역학의 관점에서 중세 중세 스페인의 번역 운동을 고찰하고

1) 본 연구에서는 ‘번역사(翻譯史, historia de la traducción)’와 ‘번역사(翻譯士, traductor)’를 구분하기 위해 전자를 ‘번역사’로 후자를 ‘번역자’로 사용하도록 한다.

자 한다. 두 문명이 조우하여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문명으로 나아갈 때, 번역은 개인적 관심과 선택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인 ‘후원’이 있어야 강력한 파급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스페인의 번역사 기술에서 있어 ‘후원’은 존재 자체는 언급되어 있으나 주된 관심은 번역자 개인과 개별 번역 결과물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조민현(2011, 287)은 “(중세) 번역물들은 어떤 구체적인 기관을 통해 나온 것이 아니라 [...] 하지만, 다양한 문화가 교차하던 시기에 그룹으로 또는 어떤 후원아래 번역을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개별 번역자와 번역 활동에 대한 연구가 한 축이라면, 후원 주체와 대상, 방식, 번역 운동의 방향성과 속도나 방식을 결정하는 후원자나 기관, 제도에 대한 논의는 스페인 번역사 연구의 또 다른 귀중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장에서 번역학적 접근, 즉 후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고 이를 바그다드 번역 후원 사례에 적용해보도록 한다. 3장에서는 역사학적 접근, 즉 스페인 중세 번역사를 간략하게 개괄하고, 4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중세 스페인의 톨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번역 운동과 후원 양상을 교회의 후원과 왕실의 후원으로 나누어 분석하도록 한다. 중세 톨레도의 번역사적 의의나 구체적인 번역 내역, 톨레도 ‘번역 학교’의 진위 여부들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바, 본 연구는 ‘후원’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한 문명이 다른 문명으로 전파되고 수용되는 역사적 교차로에서 후원을 통해 위로부터의 번역 운동이 갖는 문명 발전사적 의미를 음미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I. 번역과 후원

1. 번역학의 후원 개념

벨기에 출신의 문화 번역학자 앙드레 르페브르(André Lefevere)는 등가 중심의 텍스트 기반 번역 이론에서 벗어나 번역학의 관심을 번역이 발생하는 문

화 전반으로 확대하여 번역학 연구에 문화적 전환을 이끌었다. 그의 이론의 핵심은 번역은 더 이상 번역자 개인의 단독 번역 행위가 아니라, 사회·문화 전체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번역은 사회와 문화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 결과물은 번역자 개인의 생산물이 아니라 번역 과정을 통제하는 데 관계하는 작가, 독자, 출판사, 후원자 등 모두의 생산물이 된다. 따라서 번역을 문화와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번역을 통제하는 요소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르페브르가 제안하는 번역을 통제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Lefevere 1992).²⁾

첫째, 문학 체계 안의 전문가이다. 문학 체계 안의 전문가는 비평가와 평론가, 교육자, 번역자들로, 번역물이 취할 문학 사조와 이데올로기까지도 결정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스페인의 번역사 연구 중 개별 번역자 개인의 생애와 번역 작품, 번역 전략 등에 대한 기술은 바로 이 체계 안의 전문가에 대한 연구에 속한다. 번역자는 물론 번역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학 체계 안에 새로운 번역 문학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선택, 번역 전략, 번역 시기, 출판사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문학 체계 바깥의 후원자이다. 이들은 문학의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후원자는 번역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목적에 맞게 통제하기도 한다.

특히 문학 체계는 문학 체계에 후원을 제공하는 특징인, 특정 집단, 기관(메세나, 중국과 인도 황제, 술탄, 고위 성직자, 귀족, 호족, 고관대작, 교회, 궁정, 파시스트당, 공산당)과 같은 규제기관(regulatory body)을 둔다.(Lefevere 1992, 5-6)

중세 스페인의 경우 자국의 언어와 문학이 태동하기 전에는 일종의 ‘문학의

2) 이하 Lefevere(1992)는 원전을 참조했으며, 그 번역은 먼데이(2006, 181-184)에서 재인용·재구성한 것임.

진공 상태'였기 때문에 아랍 언어를 매개로 이슬람 문화와 그리스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후원자의 후원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통제를 경험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후원은 이데올로기적 요소, 경제적 요소, 지위적 요소의 세 가지 요소로 나뉜다. 이데올로기란 “인간의 행동에 질서를 부여하는 형식, 관습 및 신념의 틀”(Lefevre 1992, 16)로서 후원자는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 지향적이다. 경제적 요소는 과거 후원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이나 보수, 오늘날의 인세와 번역료 등을 지칭한다. 지위적 요소는 후원자나 출판사 등으로부터 경제적 보상을 받는 대신, 번역자는 후원자로부터 후원을 받는 위치, 즉 지위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자가 갖는 기대를 충족시켜야 함을 의미하며, 마찬가지로 특정 단체에 소속됨으로써 번역자는 그 기관의 지침이나 방향성을 따르게 된다. 번역 후원은 후원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수립된 번역 제도와 기관 등의 체계 안에 후원을 받은 번역자를 편입시킴으로써 번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셋째, 지배적인 문학 사조는 문학적 장치와 문학의 역할에 대한 당대의 지배적인 관점을 의미한다. 후원자의 이데올로기는 지배적인 문학 사조를 결정하고, 지배적인 문학 사조가 결정되면 무엇을 번역할 것인가,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누가 번역할 것인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결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중세 스페인이라는 특정 시기, 특정 지역의 번역 현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개인 번역자와 개별 번역 작품 및 번역 전략과 관련한 문학 체계 안의 전문가에 대한 미시적인 연구와 함께 번역 활동을 추동하는 문학 체계 바깥의 후원자, 후원 방식, 이데올로기 등을 거시적인 맥락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학 체계 바깥의 후원자의 영향력 하에 지배적인 문학 사조를 비롯하여 번역물 선택, 번역 전략, 번역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한 사회의 번역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문학 체계 바깥의 후원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 중세 스페인이 번역의 중심지로 꼽힐 수 있었던 것은 페르시아, 시리아, 그리스, 알렉산드리아 등의 정복 과정을 통해 축적한 서적에 대한 아랍의 번역 후원 전통이 이베리아 반도에 직접 전

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본격적으로 중세 스페인 톨레도의 번역과 후원을 논의하기 전에 다음 절에서는 현왕 알폰소 10세가 전범으로 삼은 아랍 세계의 번역 후원 양상을 번역학의 ‘후원’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보도록 한다.

2. 바그다드의 번역 후원

지혜의 집은 도서관 기능과 번역원 기능을 담당한 종합학술기관이었다. 우마이야조(660-750)가 압바스조에 멸망되어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쳐 세운 후 우마이야조(756-1031)는 서고트족을 멸망시키고 이베리아 반도 내 자신들의 지배권을 확립했다. 이 과정에서 통치자들은 지혜의 집을 모방하여 코르도바에 도서관을 설립하여 압바스조와 경쟁적으로 장서를 축적하고 번역 사업을 실시하도록 후원했다. 이베리아 반도 내 여러 문화의 공존을 가능하게 한 이러한 아랍이슬람 통치자 주도 하의 번역 후원 전통은 고스란히 스페인 중세 번역 후원 전통으로 이어졌다.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압바스조 칼리파들은 642년 알렉산드리아를 함락시켰다. 그리고 지중해 문화와 동양 문화-페르시아, 인도, 중국-를 하나의 사회 속에 통합시켰다. 너무나도 찬란한 각기 다른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 아랍 인들은 학문 발전에 힘썼고, 압바스조 칼리파들은 번역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 중 제 2대 칼리파 알-만수르(al-Mansur, 754-775)는 번역 위원회를 설치하여 번역 운동을 펼쳤고, 7대 칼리파 알-마문(al-Ma'mūn, 783-833)은 번역 운동을 적극 후원했다.

중세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는 압바스조(750-1258) 시절에 절정에 달했다. 압바스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세계 최대의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 압바스조는 문화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아랍인, 페르시아인, 무슬림, 기독교도, 유대교도 등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고루 등용했고, 그들의 문화적 유산을 흡수하는데도 적극적이었다.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압바스조가 동서고금의 학문이 교통하는 문화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보다도 ‘번역’이었다.(김정명 2012, 34)

번역은 번역 위원회나 기관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알-마문이 설립한 지혜

의 집은 당대 이슬람 세계의 최고 교육 기관이자 도서관, 번역 사무국이었다. 지혜의 집에서 번역자들은 해당 주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으며 주로 그리스 과학 및 철학 자료를 그리스어, 시리아어, 페르시아어, 산스크리트어 및 아랍어 번역을 담당했다. 당시 지혜의 집에만 총 65명의 번역가가 고용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모나 베이커 2009, 464).

한편 바그다드가 전례 없는 번역 활동의 무대가 된 이유는 704년 사마르칸트의 함락 이후 포로로 붙잡힌 중국인 제지공으로부터 종이 제조법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793년 바그다드에 최초로 제지 공장이 설립되어, 아랍의 구전 문학을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제지술은 이슬람 세력을 통해 이베리아 반도에 전해져 1151년 유럽에서는 최초로 스페인에 제지 공장이 세워지기에 이른다(쓰지유미 2008, 68).

이렇듯 번역은 문화 교차로에 있는 개개인의 번역 활동에서 시작한 아래서위를 향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문화 교차로에서 문화를 이끄는 정치·사회·문화적 배경 하에 강력한 후원을 통한 위에서 아래로 향한 움직임이었다. 다음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9세기 그리스 문화를 번역하여 이슬람 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던 바그다드 칼리파들의 번역 후원 사례에 번역학의 후원의 개념



〈그림 1〉 바그다드 지혜의 집

을 적용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1) 이데올로기적 요소

후원자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에 따라 번역 대상이 정해지며, 적합한 번역 방식과 전략도 정해진다. 천문학에 매료된 알-만수르는 많은 양의 인도 필사본을 모아 아랍어로 번역하도록 후원했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심취한 알-마문은 그리스 철학 작품 번역을 후원했다. 번역자 후원에 앞서 후원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관심에 따라 번역물 자체도 수집, 선정했어야 했을 정도였다.

이 시기 동안 문학은 상대적으로 관심을 끌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문학이 이슬람교의 가르침과 갈등을 빚는 종교적인 신화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아랍인들이 이미 자기들 고유의 강한 문학 전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 그리스극이나 시에는 거의 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모나 베이커 2009, 462)

이렇듯 후원자의 이데올로기는 번역물 선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예 사조 수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바그다드의 문학 번역 활동이 미미했기 때문에, 추후 이슬람 문화가 이베리아 반도에 당도했을 때, 스페인 기독교인들은 그리스 문학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이슬람의 문학 전통만을 바탕으로 자신의 문학을 구축하게 된다.

2) 경제적 요소

바그다드 지혜의 집에서 활동하는 번역자는 자신의 번역물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받았을지언정, 그 지위는 일반인들의 부러움이 대상이었다. 후나인 이븐 이사크(Hunayn bin Ishāq)는 부유한 바누 무사(Banu Mūsā) 가문의 후원을 받았으며 알-마문으로부터 자신이 번역한 책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황금을 대가로 받을 정도로 그의 여유로운 생활은 당대 널리 회자될 정도였다(베이커 2009, 466; Pascua Febles 2012, 33). 번역자로서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는 것은 모든 번역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으나 일반적으로 번역자들에게는 주거와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3) 지위적 요소

일정한 형태의 후원을 받은 수혜자들은 후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된다. 초기 번역의 황금시대에 이어, 후원자들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다양한 분야에서 독창적인 저술이 풍성하게 쏟아져 나왔다. 원문을 번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양의 논평을 포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독자인 후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전개한 것이었다. 번역에 논평을 달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만이 번역에 참가할 수 있었다. 후나인 이븐 이샤크도 준다이샤푸르 출신의 기독교도로서 본직은 의사였다(전완경 2013, 164). 따라서 후나인 빈 이샤크보다 학식이나 지위가 낮은 제자들은 독자적으로 번역을 담당할 수 없는 하층 번역자에 만족해야했고, 그가 그리스에서 시리아어로 번역하면, 제자들이 시리아어에서 아랍어로 중역하는 방식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모나 베이커 2009, 471).

여기에는 언어의 헤게모니도 작용한다. 당시 바그다드에서는 시리아어가 주 매개 언어가 되었다. 번역위원회의 지도자들인 네스토리우스 기독교도들이 시리아어를 예배 언어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리아어로 그리스 작품을 번역했다. 시리아어로 이용할 수 없는 그리스어로 된 작품들은 아랍어로 직접 번역되거나 시리아어를 중역하여 아랍어로 번역했다(모나 베이커 2009, 464).

왕을 비롯한 명망 가문의 경제적 후원과 제도적인 번역 기관 설립 전통은 세대를 거쳐 이슬람 문화권의 전역에서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그 번역 후원의 전통은 스페인의 번역 전통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 장에서는 본격적인 중세 스페인 번역 후원 양상을 고찰하기 전 중세 스페인의 번역사를 개괄적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III. 중세 스페인의 번역

스페인은 711년부터 1492년까지 약 8세기 동안 이슬람 세력의 지배를 받았

다. 당시 스페인에 침입한 이슬람 세력은 바그다드에서 그리스 문화를 번역함으로써 문명의 개화를 경험하였기에, 왕국의 수도 코르도바에 바그다드에 필적할만한 40만권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을 세우고 지식을 바탕으로 한 다인종, 다문화 중심지로 만들었다. 당시 “여타 유럽 도서관의 장서가 십여 권에서 백 권을 넘지 못했음”(García Yebra 1989, 322)을 고려할 때, 실로 엄청난 지식의 보고였음을 알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당시 코르도바는 동·서양의 아름다움을 한 데 모아 서양에 전한 “보석처럼 빛나는 도시(resplandece como una piedra preciosa)”였다(García de Cortázar 2008, 68).

바그다드와 왕성한 교류와 비잔틴 제국과의 외교 관계, 중재자로서 번역가로서 활동한 유대인학자들의 관용, 그리스 문헌과 라틴 문헌의 입수와 같은 조건들로 인해 코르도바는 자체적으로 문화의 용광로로 거듭날 수 있었다.³⁾ (García de Cortázar 2008, 54-55)

그러나 이슬람 세력의 균열로 1031년 이슬람 왕조가 몰락하는 과정에서 코르도바가 문화적 전성기를 구가하게 해주었던 관용과 공존이 위협받자 다개국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코르도바를 떠나 톨레도로 향했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 북부로 쫓겨난 기독교인들은 세력을 규합하여 왕국을 세우고 국토회복전쟁(Reconquista)을 통해 남하하여 1085년 톨레도를 탈환했다. 718년 코바동가 전투의 승리 후 지속된 국토회복전쟁으로 문화 융성을 경험하지 못했던 기독교인들에게 철학, 과학, 의학, 건축 등에 나타난 이슬람 문화는 충격이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이 충격을 발전의 계기로 삼았다. 당시 톨레도에는 아랍인들이 번역한 고대 그리스 문헌을 포함한 장서들이 가득했고 각지에서 몰려든 번역자들은 쉬지 않고 이를 번역해냈다. 철학, 종교, 과학,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의 문헌들을 번역하기 위해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뿐만 아

3) Las fluidas relaciones con la casi infinita Bagdad y los contactos diplomáticos con bizancio, la tolerancia de los estudiosos judíos que actuaban como intermediarios y traductores, el acceso a las fuentes griegas e incluso algunas latinas, permitieron a Córdoba la formación de su propio crisol cultural.

나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코틀랜드, 독일 등 유럽 전역에서 번역자들이
 톨레도로 몰려들었다. 당시 톨레도의 번역은 “다문화적 사회가 낳은 대표적인
 문화 운동”(조민현 2012, 302)이었다. 도서관을 가득 채운 문헌들, 거리마다 넘
 실대는 다양한 다국적인들, 그들이 사용하는 다채로운 언어들, 톨레도를 세
 계의 중심으로 만든 ‘번역’의 주인공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번역’ 운동은 기독교 세력의 남하와 더불어 무르시아에서도 나타났
 다. 현왕 알폰소 10세는 아라곤의 하이메 1세와 손잡고 무르시아의 아랍 왕국
 을 정복했다. 무르시아는 그라나다의 나사리 왕국과 국경을 접한 요충지로서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변모해나갔다. 중세 스페인 번역사에서 무르시아가
 갖는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실증 가능한 번역 학교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Santoyo 2011, 51). 무르시아에서는 실제로 1265년 ‘studium arabicum et
 hebraicum’이라는 이름의 번역 학교가 설립되어 아랍어와 히브리어를 교육했
 다. 1269년 현왕 알폰소 10세는 무르시아 번역 학교를 설립하여 수학자 알 리
 코티(Al-Ricoti)에게 운영을 맡겼다(Pons Tovar 2010, 246). 그리하여 현왕 알
 폰소 10세는 카스티야어로 번역된 많은 저작들을 다시 카스티야어로 재번역
 하는 작업을 통해 아랍 지배 문화를 청산하고 다시 기독교화하고자 했다. 무르
 시아 번역 학교의 설립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IV. 중세 스페인의 번역과 후원

현왕 알폰소 10세는 아랍 이슬람 세계의 번역 후원, 더 가까이는 타이파의
 회교도 제후들을 본보기로 삼았다(박철 1998, 57). 즉, 중세 스페인의 번역 후
 원 양식은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 후원 모델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른 점은 정교일치 사회인 아랍 이슬람 사회에서는 번역 후원자가 단일했으
 나,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었던 중세 기독교 스페인 사회에서는 번역 후원자가
 교회와 왕실로 나뉘었다는 점이다. 개인의 번역 활동을 집단적 번역 운동으로
 끌어올린 후원자들은 번역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자들을 후원했기 때문에, 교회의 후원과 왕실의 후원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공히 스페인을 최고의 번역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으며, 번역을 통해 생성된 지식을 전 유럽으로 확산시켜 르네상스 학문의 발판을 형성함으로써 근대 유럽 탄생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중세 스페인 톨레도에서 이루어진 번역 후원 방식을 교회의 후원과 왕실의 후원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후원 양상을 분석하도록 한다.

1. 교회의 후원

중세 초기 학문적 기능은 수도원이 담당했다. 톨레도에서 성직자들은 교육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충분했기 때문에 번역 후원에 적임자였다. 톨레도의 레이몽 대주교(Arzobispal de Toledo Francis Raymond de Sauvetat, 1125-1152)는 프랑스 클뤼니 수도원 출신으로, 당시 톨레도를 비롯한 이베리아 반도에는 프랑스 클뤼니 수도원 출신의 성직자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클뤼니 교단은 유럽에서 가장 발전되고 활동적인 기관으로 1022년 처음으로 스페인에 들어와 수도원을 설립하였고 산초대왕(Sancho el Mayor)은 서고트족 예배의식을 클뤼니 교단의 로마식 예배의식으로 대체했다(서경석 2007, 4-5). 당시 클뤼니 수도원의 장서는 몇 권에 불과했지만, 톨레도의 아랍어 장서는 약 30만권에 이르렀다(Delisle and Woodsworth 1995, 116). 이로 인해 클뤼니 교단 성직자들은 적극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톨레도 장서 번역 사업에 나서게 되었다.

1) 이데올로기적 요소

12세기 중엽 톨레도의 레이몽 대주교는 “종교나 인종에 관계없이 언어에 능통한 학자들이 이 도시에 모여서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발상”(조민현 2012, 286)을 하였다. 레이몽 대주교는 아랍어로 된 그리스 철학이나 종교 원전을 라틴어로 번역하도록 장려했다. 한편 여기서 레이몽 대주교가 프랑스 클뤼니파 교단 출신이라는 점은 또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개입 양상을 예상하게 한다.

1142년 클뤼니 수도원의 가정자 피에르(abad Pedro el Venerable) 원장은 스페인을 방문하는 동안 코란과 그 외 이슬람 문헌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했다(레이몬드 카 외 2006, 113-114). 코란을 라틴어로 번역한 이유는 이슬람교에 대한 호의나 관심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의 입장에서 이슬람교를 단순히 논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랍 전통에 대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특별하게 언급된 부분은 톤다운 하거나 생략하는 번역 전략을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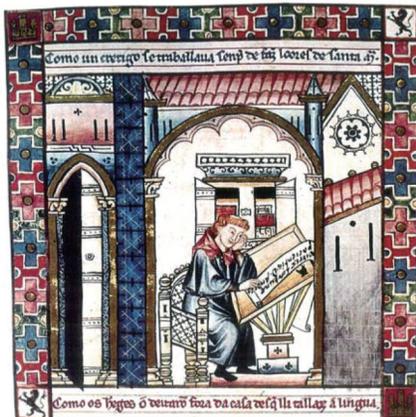
이베리아 반도 내 프랑스 클뤼니 수도원 출신 성직자들의 번역 후원은 스페인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레이몽 대주교 시기 번역어는 아랍어와 라틴어였다. 당시 번역 방식은 아랍어를 구어로 전하면 카스티야어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라틴어 문어로 번역하는 릴레이 방식이었다(조민현 2012, 289). 고전 라틴어로 번역한 이유는 당시 고전 라틴어가 유럽의 링구아 프랑카(lingua franca)로서 종교어로서 기능을 담당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랑스 출신의 레이몽 대주교는 굳이 번역을 카스티야어로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번역물의 최종 도착지가 스페인이 아니라 프랑스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번역 후원자의 이데올로기적 개입은 톨레도 레이몽 대주교가 후원한 번역자의 국적에서도 나타난다. 영국의 로베르토 데 체스테르(Roberto de Chester), 아델라르도 데 바스(Adelardo de Bath), 다니엘 모를라이(Daniel Morley), 이탈리아의 헤라르도 데 크레모나(Gerarde de Cremona), 독일의 헤르만 엘 알레만(Hermann el Alemán), 달마시아의 헤르만 엘 달마타(Hermann el Dálmata), 스코틀랜드의 미겔 스코토(Miguel Scotto) 등이 레이몽 대주교의 후원 속에 활발한 번역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모두 당대 최고의 지식의 보고인 톨레도에서 학문을 연마하여 고국으로 돌아가 이식하고자 했다. 로베르토와 헤르만은 스페인에서 천문학, 지리학, 수학 등에 관한 아랍어 저서들을 찾아 라틴어로 번역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과, 그에 대한 안달루스의 박식가 아베로에스(Averroes, 1125-1198)의 주석과 같은 방대한 지식을 서유럽 기독교 세계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레이몬드 카 외 2006, 114).

더욱이 당시 스페인에는 대학이 출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레이몽 대주교

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번역물의 최종 도착지는 소르본느 대학이었다. 결국 레이몽 주교 하의 톨레도 번역 운동에서 스페인과 톨레도는 유럽을 위해 “중세 철학적 르네상스의 중재자, 단순한 전파자” 역할을 할 따름이었다(Vences Fernández 2001, 269-271).

2) 경제적 요소

산티아고 순례 행렬과 기부 행렬로 인해 교회의 경제적 영향력이 커져갔다. 특히 클뤼니 수도원 수도사들은 전문적인 기도를 올려주는 대신 왕실로부터 무슬림의 금을 매년 얼마씩 기부받기까지 했다(레이몬드 카 2006, 100). 이러한 경제적 풍요로움 속에서 레이몽 대주교의 후원 방식은 다양했다. 무엇보다도 대주교가 직접 외국인 번역자들의 후견인이 되어 이들의 번역 작업에 편의를 제공했다. 대주교의 후원 하에 번역자들은 고위 성직자들의 집이나 성당 회의장에 배속될 수 있었다. 번역자들은 제공 받은 교회 기록실(Scriptorium)에 모여 공동 작업을 했고, 방대한 텍스트와 주석서도 보관할 수도 있었다. 또한 번역자들은 대성당 주변에 위치한 숙소를 제공받았으며 또는 대주교나 궁정 근처의 외딴 장소에서 한적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기도 했다(Ruano 2000, 20-22).



〈그림 2〉 『성모마리아 찬가』 속 Scriptor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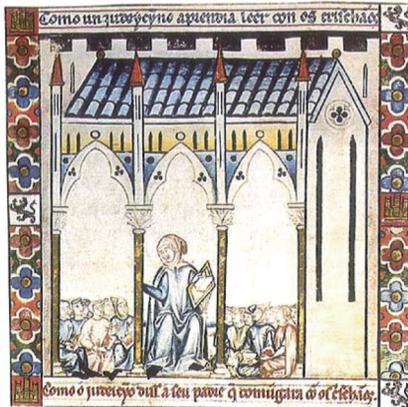
3) 지위적 요소

톨레도 대주교의 후원을 받은 번역자들은 그리스 철학서의 경우 원문에 충실하기보다는 원문에 개입하여 조작하는 수준까지 후원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번역 과정에서 군디살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가 기독교의 교리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세계에 대한 관념적·신비적 설명을 벗어나 구체적인 물질세계를 중시했기에 초월적 영역을 중시하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군디살보는 사물을 설명하는 네 가지 원인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체계를 중세 기독교이 관점에서 합리화하려고 시도하였다.(조민현 2012, 292)

서적의 기독교화를 위해서는 생략이나 변형 같은 전략이 사용되기도 했다. 일레로 스페인 교회를 존중하여 간통 이야기는 최소화 되었다(안소니 뎀 2009, 792).

레이몽 대주교의 후원 당시 번역 매개어는 아랍어, 카스티야어, 라틴어였다. 유대인은 카스티야어를 구어로 번역했다. 이 유대인들은 개종 여부에 따라서 지위도 달라졌다. 개종하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고작해야 무명의 중재자에 불과하여 아랍어를 카스티야어 구어 번역만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현왕



〈그림 3〉 『성모마리아 찬가』 속 기독교인과 함께 읽는 법을 학습 중인 유대인

알폰소 10세 치세 하에서는 유대인들의 개종 여부가 12세기만큼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개국어에 능통한 유대인들은 곧바로 번역 사업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림 3>에 묘사된 것처럼 유대인은 크고 중심에 위치한 반면, 기독교인들은 작고 주변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종교가 아니라 능력에 따라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후원 환경이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2. 왕실의 후원

톨레도 번역의 왕실의 후원자는 현왕 알폰소 10세였다. 카스티야 왕국은 페르난도 3세(Fernando III, el Santo) 집권 당시 사상 최대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면서 서부 유럽 최대의 군주국의 하나가 되었다(강석영 · 최영수 1988, 97). 그에 비해 현왕 알폰소 10세는 연이은 정치적 실정으로 인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심지어 스페인 역사(박철 1984)에는 표제 항목으로 등장하지도 않을 정도이다. 그러나 현왕 알폰소 10세의 진가는 재정복 후 그가 이룩한 전례 없는 문화적 업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카스티야 왕국의 알폰소 10세는 정치적으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 그러나 정치적 실패를 알폰소 10세는 그가 거둔 두드러진 문화적 성취로 만회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성취는 그에게 “현왕(賢王, el Sabio)이라는 별명을 가져다주었다. 이 문화적 성취의 상당 부분은 고전시대, 아랍, 그리고 히브리인들로부터 전수된 지식에 의존했다. 물론 그 과정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특히 12세기의 여러 번역학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예가 톨레도의 번역학교였다). 그러나 알폰소 10세는 이 과업의 부활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던 국왕의 후원을 제공하는데 적극적이었다.(양구스 맥케이 2006, 128-129)

스페인 번역사에서 현왕 알폰소 10세의 후원은 이베리아 반도를 뛰어 넘는 것이었다. “톨레도의 유대인 지식인 집단과 전 유럽에서 톨레도의 문화적 개화 소식을 듣고 방문한 유럽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매개 장소가 될 수 있었다.”(Menéndez Pidal 1999, 85).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알폰소 현왕의 궁전은 전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다양한 인종, 종교, 언어를 사

용하는 지식인들로 가득했다.

현왕 알폰소 10세는 카스티야 국가 건설 정책의 일환으로 대대적으로 번역을 후원했기 때문에 레이몽 주교의 번역 사업과는 차이가 있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현왕 알폰소 10세의 번역 후원은 레이몽 대주교의 번역자 보호 정책을 이어간 것으로, 이들의 장려로 여러 번역자들이 서양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그리스 저술과 아랍의 과학 교재를 번역했다.(계레로 외 1993, 123)
- 가톨릭 학자들 외에도 유대현인 및 아라비아 학문을 하는 지식인들을 궁중에 모아 놓고 학문 연구에 전념케 하였다.(마상영 2000, 93)
- 아랍 제후들을 본보기로 삼아 현왕 알폰소 10세는 코란이나 탈무드와 같은 성서(Libros Sagrados)를 까스티야어(castellano)로 번역하게 하였는바, 이 인내심 많은 군주는 신앙을 차별 하지 않고 문학자들과 현자들을 고루 등용했다.(박철 1998. 57)

현왕 알폰소 10세는 국가 발전의 핵심인 과학을 주제로 하는 텍스트를 새로이 통일되어 가는 민족의 언어 카스티야어로 번역하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과학과 철학 작품 번역을 후원했고, 일반 대중의 언어인 카스티야어를 번역도착어로 사용함으로써 학문의 언어로 격상시켰다. 이는 현왕 알폰소 10세의 내부 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스페인 왕국을 통일하고 문화적인 기반 위에 그 언



〈그림 4〉 『성모마리아 찬가』 속 현왕 알폰소 10세

어를 건설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González 2007, 84).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알폰소 10세의 후원 요소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이데올로기적 요소

현왕 알폰소 10세의 관심은 카스티야 왕국을 정점으로 한 통일 왕국의 건설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선진 아랍 문화의 확산이 절실했다. 따라서 아랍의 학문을 스페인 국민들 사이에 확산하는데 주력했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의 목표언어는 라틴어가 아니라 카스티야어였으며, 번역된 텍스트가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왕 알폰소 10세는 번역 텍스트 선택, 수정에서부터 최종본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Ruano 2000, 25). 후원자의 전문성 앞에 번역자들은 전 세기보다는 자유롭지 못했다. 성모 마리아 찬가(Cantigas de Santa María)에서 파리의 도둑이나 임신한 수녀원장이 성모 마리아의 은총으로부터 구원 받는 내용이 등장하는데(레이몬드 카 2006, 126), 이는 레이몽 대주교 시절 서적의 기독교화 작업에서 교회를 존중하여 간통과 같은 행위를 번역시 의도적으로 삭제했음을 상기할 때, 현왕 알폰소 10세 시기 교권보다는 왕권을 중심으로 한 문화 운동이 활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경제적 요소



〈그림 5〉 『놀이책』을 구술하는 현왕 알폰소 10세

현왕 알폰소 10세의 경제적 후원은 레이몽 대주교의 후원 방식보다 훨씬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었다. 번역가들에 대한 의식주 후원은 아래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 1253년 현왕 알폰소 10세께서 톨레도가 아닌 세비아에서 성직자이자 번역가 기옌 아레몬(Guillén Arremón)과 가르시 페레스(Garci Pérez)에게 올리브 밭 80평, 포도밭 5평을 하사하였다.
- 1266년 현왕 알폰소 10세께서 어의(Judah ben Moshe ha-Kohen)에게 번역에 대한 포상으로 헤레스 데 라 프론테라의 집 여러 채를 하사하였다.⁴⁾ (Santoyo 2011, 50)

현왕 알폰소 10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을 궁정으로 데려와 학문을 논하고, 연구하며, 저술 활동에 몰두하는 활동 전반을 즐겼다. 이 많은 인력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제도적 형식이 아닐지라도 작가, 도서관, 문학가, 필경사, 번역가 등 다양한 학자 집단을 위한 장소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학자들 간 이견이 존재하지만 종교재판소가 있었던 산타 페 거리 갈리어나 궁(Palacio Galiana)일 것이라는 추측도 존재하는데, 톨레도에서 가장 천문학 관찰이 용이한 고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이다(Ruano 2000, 26).

이렇듯 현왕 알폰소 10세는 안정적인 번역 환경과 의식주를 보장하여 유럽 최고의 번역자를 유인하였고, 번역 품질 향상을 위해 번역자들의 성공에 현물로 포상했다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적극적인 번역자 후원 체계를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지위적 요소

왕 알폰소 10세는 국토재정복 운동의 성공을 경험하면서, 카스티야 왕국을

4) • Fuera en Sevilla (y no en Toledo) donde en 1253 Alfonso X concedió a dos de sus traductores, Guillén Arremón y Garcí Pérez, clérigo de aquella catedral, 60 aranzadas de olivar y tres aranzadas y media de viñado.
• [...] en octubre de 1266 Alfonso X hace donación a su médico Judah ben Moshe ha-Kohen de varias casas en reconocimiento a sus servicios de traductor, se las regala en Jerez de la Frontera.

넘어서 제국을 꿈꾸었다(Menédez Pidal 1999, 72). 그리고 선대부터 이루어진
 톨레도를 중심으로 한 번역 학파(escuela)의 발전을 경험하면서 비단 카스티야
 왕국에 국한하지 않고 세비아, 무르시아 등 이베리아 반도 전체의 국가적 발전
 을 위한 집단 지성체로서의 번역자 후원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후원의 수혜자
 들은 번역자(traductor) 개인이라기보다는 번역에 참여하는 집단 협력자
 (colaborador)로 기능했고 왕실의 후원을 받는 번역사 집단의 일원으로서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가운데 늘 현왕 알폰소 10세
 곁에서 번역 사업을 진행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책을 한데 모으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는 현왕 알폰소 10세 치세 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과업이었다. 그다
 음에는 이 지식원이 쓰여진 서로 다른 언어를 옮기는 일을 담당할 자신의 궁
 정 번역자 인력을 확대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현왕 알폰소 10세는 자신이 생
 각하는 사업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믿음만한 협력자가 필요했다. 여기에 필
 경사, 편집자, 주해자로 팀을 꾸리고, 이 밖에도 양피지 담당자, 줄긋기 담당자
 , 편집 담당자, 수정 담당자, 개작 담당자, 복사 담당자, 화가, 채색 담당자[...]
 등이 포함되었다.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었기에, 특별한 장소를 필요로 했다.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수백 명의 전문가를 고용했으며, 모두 자신의 분야에
 서 뛰어난 고수들이었다.⁵⁾ (Snow 2010, 301)

현왕 알폰소 10세는 스스로 번역 감수자로 번역 사업에 참여할 정도로 재기
 가 뛰어났다. 그리하여 번역물은 현왕 알폰소 10세의 손에서 완성되고, 불만족

5) Para su organización y realización, precisaba primero juntar los muchos libros
 necesarios, una tarea que iba a ser constante a lo largo de su reinado. Luego tenía
 que ampliar el círculo de traductores de su corte para ocuparse de traslados de los
 distintos idiomas de estas fuentes del saber. Necesitaba hombres de confianza y
 colaboradores en el trabajo de llevar a cabo y editar los proyectos que él ideaba. Y
 estos incluirían compiladores, editores y ayuntadores para cada obra, varios
 preparadores de pergaminos, delineadores, sub-editores, correctores, enmendadores,
 copistas, equipos de miniaturistas (grupos de especialistas con distintos talentos,
 como se sabe), preparadores de los colores, [...] Era una empresa enorme, que
 debía ocupar espacios específicos, según las labores llevadas a cabo, empleando
 cientos de profesionales, todos hábiles en sus especialidades.

시에는 재번역되거나, 가공을 거치게 되었다(Pascua Febles 2011, 38-39). 그는 번역자가 유대인인 경우 기독교인과 협조해서 문체를 수정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번역에 완벽을 기했다(Menéndez Pidal 1999, 68). 집단 작업 체제 하에서 번역자들은 후원자인 현왕 알폰소 10세의 기대에 부응한 번역 전략을 채택했다. 왕실의 후원을 받았던 전 시대에 선호되던 직역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의역, 재번역, 주석 및 설명 첨가 등 자유로운 번역 전략이 채택되었다.

이처럼 현왕 알폰소 10세의 후원을 받은 번역자들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특수 번역 분야 담당자로 분화하였으며, 수년간 톨레도에서 활동한 번역자들은 톨레도를 떠나 현왕 알폰소 10세 휘하에 있는 다른 도시에서 번역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따라서 톨레도의 선진 번역 사업을 경험한 톨레도 학파의 번역자들은 향후 활동 면에서 다른 번역자에 비해 왕실 번역자로서 지위 면에서 우위를 점했을 것이다.

V. 나오며

본 연구는 후원의 개념을 바탕으로 중세 스페인에서 활발하게 일어난 번역 운동을 추진한 후원 양상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후원자에 따라 후원 목표와 후원 방식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후원자를 교회의 후원자와 왕실의 후원자로 나누고, 이를 다시 후원자의 이데올로기, 경제적 요소, 지위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후원의 주체에 따라, 번역자, 번역 언어, 번역대상, 번역방식이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교회의 후원자인 레이몽 대주교는 종교와 철학서 번역을 후원하였고, 언어는 라틴어 번역을 고수했다. 교회의 후원을 입은 번역자들은 종교색과 고전 문헌의 내용을 합치시키고자 내용을 수정, 변경하였다. 후원은 종교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교회 기록실을 제공하여 공동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교회 주변에 숙소를 마련하고 도시 외곽에 번역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었다. 교회가 번역자를 교회 내 한직에 임명하거나 대주교가 직

접 번역자의 후견인이 될 정도의 적극적인 교회의 후원 하에 번역자들은 번역 시 종교적인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은 삭제하거나 조작하여 후원자의 기대를 충족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의 종교도 후원에 영향을 미쳤다.

왕실의 후원자인 현왕 알폰소 10세는 법, 과학, 천문학, 점성학, 수학 역사, 의학, 오락 등 다양한 주제의 번역을 후원하였고, 점차 도착 언어를 카스티야어로 할 것을 강제했다. 왕실의 후원을 입은 번역자들은 방대한 지식을 축적하여 민족 국가로의 발돋움하고자하는 후원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동 번역 방식을 통해 빠른 속도로 번역물을 생산하였고, 아직 카스티야어가 미성숙했기 때문에 번역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대한 주석을 달았다. 비단 언어 간 번역뿐만 아니라 방대한 지식 탐구 활동으로 인해 궁정 안은 늘 활기가 넘쳤으며, 문헌학과 출판업까지 다양한 부문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후원자의 엄격함으로 인해 번역자들은 완벽성을 요구받았다.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의역, 재번역, 주석 달기 및 설명 첨가 등 자유로운 번역 전략이 채택되었다. 경제적 후원 방식은 숙식 제공 외에도 현물 제공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대보다 보다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 이후 카스티야 왕국의 확장으로 세비야나 무르시아까지 번역 지역이 확장되면서, 톨레도 출신의 번역자들은 궁정 번역사의 경험을 높이 평가받아 새로운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번역자 지위를 구가할 수 있었다. 현왕 알폰소 10세는 훌륭한 번역자라면 아랍인, 유대인,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등용했기 때문에 전문인으로 사회에 통합하여 공존할 수 있었다.

중세 스페인은 아랍이슬람 세계의 번역 후원 전통 위에 교회와 왕실의 강력한 번역 후원을 통해 고대 지식을 유럽에 전파했다는 문명사적 중요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은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문화의 공존을 보장하고 사회를 통합하여 국가 발전을 이끌기 위해서는 번역에 대한 후원이 핵심적이기 때문이다.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단일화 된 국가 주도의 번역 후원 사업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으나, 적어도 다문화사회의 공존과 통합에 기여하는 번

역 활동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번역 후원 사업이 필요하다.

끝으로 중세 초기 스페인 톨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와 왕실의 후원 양상을 고찰한 본 연구는 기존의 톨레도 번역자 학교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역사 연구를 진행했다는 의의가 있겠으나, 장소가 톨레도로 국한되었고, 시기가 11-13세기로 한정된 관계로 논의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향후 톨레도 시대 이후의 이베리아 반도 내 다양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번역 후원 활동으로 논의를 확장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강석영/최영수(2005), 『스페인 · 포르투갈사』, 대한교과서.
- 계레로 외(1993), 『스페인역사』, 김수희 옮김, 빛샘.
- 김정명(2012), 「중세 이슬람 세계에서의 철학과 종교 간의 갈등-이슬람 신플라톤 철학과 전통적 창조관 간의 충돌」, 대동철학, Vol. 61, pp. 33-62.
- 레이몬드 카 외(2006), 『스페인사』, 김원중/황보영조 옮김, 까치.
- 모나 베이커(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한국번역학회 옮김, 한신문화사.
- 박상익(2011), 「르네상스와 우리 인문학」, 밀턴과 근세영문학, Vol. 21, No.1, pp. 1-16.
- 박 철(1984), 『스페인역사』, 삼영서관.
- _____(1998), 『스페인문학사』, 삼영서관.
- 백승욱(2009), 「스페인 중세 설화문학과 『천일야화』-『센테바르』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소, Vol. 8, No. 1, pp. 209-235.
- _____(2011), 「스페인 중세문학에 나타난 『판차탄트라』의 전파와 수용 양상 연구」, 『Foreign Literature Studies』, Vol. 43, pp. 147-166.
- 블랑코 아기나가/로드리게스 푸에르톨라스/사발라(2013), 『스페인 문학의 사회』① 중세(中世), 정동섭 옮김, 나남.
- 서경석(2007), 「스페인어에 나타난 불어어휘와 영향시기에 관한 소고」, 계명대학교 국제학 논총, Vol. 12, pp. 35-51.
- 쓰지 유미(2008), 『번역사 오디세이』, 이희재 옮김, 끝레마.
- 안소니 핼(2009), 『라우트리지 번역학 백과사전』, 한국번역학회 옮김, 한신문

회사.

- 양구스 맥케이(2006), 『중세후기, 1250-1500』, 김원중/황보영조 옮김, 『스페인사』, 까치, pp. 119-148.
- 이동은(2014), 「지혜의 전당(Bayt al-Hikmah)이 아랍이슬람세계 학문발전에게 끼친 영향 연구-도서관 기능을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Vol. 13, pp. 105-129.
- 전완경(2013), 『아랍문화사』, 한국학술정보.
- 제리미 먼데이(2000), 『번역학 입문』, 정연일/남원준 옮김,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조민현(2012), 「중세 스페인에서 번역과 그 문화적 의미」, 스페인어문학, Vol. 63, pp. 283-304.
- Delisle, Jean and Woodsworth, Judith(2009), *Translators Through History*,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García de Cortázar, Fernando(2008), *Breve Historia de la Cultura en España*, Barcelona: Planeta.
- García Yebra, Valentín(1989), *En Torno a la Traducción. Teoría, Crítica. Historia*. Madrid: Gredos.
- González, Daniel(2007), “Escuela de traductores de Toledo,” *Infodiversidad*, Vol. 38, pp. 37-47.
- Lefevere, Andre(1992),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Menéndez Pidal(1999), “Cómo trabajaron las escuelas alfonsíes,” *Quaderns. Revista de traducció*, Vol. 4, pp. 67-84.
- Pascua Febles, Isabel(2012), *Las Múltiples Caras de la Historia de la Traducción*, Gran Canaria: Anroart Ediciones.
- Pons Tovar, Montserrat(2010), “La traducción de los textos latinos al castellano en la corte de Alfonso X el Sabio,” *AnMal Electrónica*, Vol. 29, pp. 241-251.
- Ruano, Eloy(2000), “Ambito y ambiente de la «Escuela de Traductores de Toledo»,” *Espacio, Tiempo y Forma, Serie III, H.ª Medieval*, Vol. 13, pp. 71-98.
- Santoyo, Julio César(2011). “Cuando Oriente llegó a Occidente: La traducción en España, siglos XII y XIII. Mitos y realidades,” *Acta Universitatis Carolinae Philologica*, Vol. 2, pp. 41-56.

Snow, Joseph(2010), “Alfonso X: un modelo de rey letrado,” *Letras*. Vol. 61, pp. 297-310.
 Vences Fernández, Sergio(2001), “Traducción e ideología,” Simposio Internacional de
 Filosofía, Universidad de Coruña, [http://ruc.udc.es/bitstream/2183/11185/1/
 CC-68%20art%2014.pdf](http://ruc.udc.es/bitstream/2183/11185/1/CC-68%20art%2014.pdf)

그림 출처

- <그림 1> Wikipedia, “House of Wisdom, بيت الحكمة, Bayt al-Hikma”, https://en.wikipedia.org/wiki/House_of_Wisdom.
- <그림 2> Biblioteca Virtual Miguel de Cervantes, http://www.cervantesvirtual.com/portales/alfonso_x_alfonso_x_el_sabio/imagenes_cantigas/imagen/imagenes_cantigas_08-alfonso_decimo_el_sabio_cantigas_de_santa_maria_clerigo_en_el_scriptorium.
- <그림 3> Biblioteca Virtual Miguel de Cervantes, http://www.cervantesvirtual.com/portales/com/portales/alfonso_x_el_sabio/imagene_cantigas/imagen/imagenes_cantigas_06-alfonso_decimo_el_sabio_cantigas_de_santa_maria_judio_aprendiendo_a_leer.
- <그림 4> 출처: Biblioteca Virtual Miguel de Cervantes, http://www.cervantesvirtual.com/portales/alfonsoportales/alfonso_x_el_sabio/imagenes_alfonso_x/imagen/imagenes_alfonso_x_02-alfonso_decimo_el_sabio_en_las_cantigas_de_santa_mariar.
- <그림 5> Biblioteca Virtual Miguel de Cervantes, http://www.cervantesvirtual.com/portales/alfonso_x_el_sabio/imagenes_alfonso_x/imagen/imagenes_alfonso_x_01-alfonso_decimo_el_sabio_dictando_el_libro_de_los_juegos.

박소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psy@hufs.ac.kr

논문투고일: 2015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2015년 8월 13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19일

Translation and Patronage in the Medieval Toledo, Spain

So-Young,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Park, So-Young(2015), Translation and Patronage in the Medieval Toledo, Spain. *Revista Iberoamericana*.

Abstract The culture of Ancient Greece was translated into Arabic in Bagdad from the ninth century, and it helped enrich Islamic civilization. And the Islamic culture, in turn, was translated into Latin and the Romance languages in cities like Córdoba and Toledo on the Iberia Peninsula starting from the eleventh century, which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European culture. According to Tsuji Yumi (2008: 50), “one cannot talk about European translation history without referring to the translation activities by Muslims that preserved the culture of Greece and by people of Toledo, a major gateway to Arab civilization.” Toledo and other cities were able to become translation centers in the medieval times in part because they were home to linguistic and cultural talents. But more importantly, it’s because those talents received patronage of religious and political purposes. As for the translation activities in Toledo, however, the main academic focus has been on translators, their translated works and whether the school of translators (La Escuela de Traductores), actually exist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how patronage worked in Toledo at that time and what significance it held, after separating religious patronage given by Francis Raymond de Sauvetat, the Archbishop of Toledo, from political patronage by Alfonso X, the Learned, based on the Lefevre’s definition of patronage.

Key words the Medieval Spain, Toledo, Translation, Patronage, Archbishop Raymond of Toledo, Alfonso X the learned